

저기 미륵불이 어서 오라고 반기네



백두대간 속으로 (21)

새재 → 하늘재

들었다 하여, 혹은 역새가 많아서, 또는 새로 낸 길이라 하여 새재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문경새재에서 다시 백두대간의 등성마루에 선다.

우선 조령샘에서 목을 축인다. 마름 샘 위의 산신각 앞에서 한판 굿이 벌어지고 있다. 무슨 애달픈 사연이 그리 많은지, 연신 손이 달도록 빌어대는 아낙의 비라리가 죽은하기보다는 자못 엄숙해 보인다. 나 또한 갈데없는 중생의 형편이지만, 그 아낙의 소망이 무엇이 됐건 그대로 이루어지길 빌어본다.

새재에서 이어지는 백두대간 길은 조령관을 지키던 군사들이 뿔뿔이 뿔뿔이 뿔뿔이 지나 마태봉(925m)으로 이

를 새운다. 이 지점에서 북 떨어졌다 탄항산(925m)을 타고 넘어면 곧바로 하늘재다. 멀리 군데더기 없는 하늘금을 보이는 백두대간의 연봉들은 기하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늘재를 호위하듯 솟아오른 맞은편의 포암산(961.8m) 남쪽 암봉은 꽤나 고집스런 표정을 지어보이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산임을 암시하고 있다.

드디어 하늘재(520m)다. 백두대간에 열린 수많은 고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이다. 언제부터 하늘재라 불린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이곳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재라 부른다. 옛 기록으로 남겨진 본디의 이름은 계림령(鷄立嶺), 기록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개다.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를 보면, 아달라 이사금 3년(156) 여름 4월에 계림령 길을 열었다고 적고 있다. 기록상 축령보다도 2년이 앞선다. 또한 이 고개는 김유신이나 온달을 앞세워 삼국유사에 등

을 새운다. 이 지점에서 북 떨어졌다 탄항산(925m)을 타고 넘어면 곧바로 하늘재다. 멀리 군데더기 없는 하늘금을 보이는 백두대간의 연봉들은 기하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늘재를 호위하듯 솟아오른 맞은편의 포암산(961.8m) 남쪽 암봉은 꽤나 고집스런 표정을 지어보이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산임을 암시하고 있다.

드디어 하늘재(520m)다. 백두대간에 열린 수많은 고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이다. 언제부터 하늘재라 불린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이곳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재라 부른다. 옛 기록으로 남겨진 본디의 이름은 계림령(鷄立嶺), 기록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개다.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를 보면, 아달라 이사금 3년(156) 여름 4월에 계림령 길을 열었다고 적고 있다. 기록상 축령보다도 2년이 앞선다. 또한 이 고개는 김유신이나 온달을 앞세워 삼국유사에 등



◊미륵사에서 미륵 대입사로 가는 길가에 선 불두. 흙 속에 묻혀 있던 걸 발굴했다고 한다.

오늘 '관음' 내일 '미륵' 잇는 하늘재 "지금 이곳이 곧 극락"임을 일깨우고

어진다. 또한 이 길은 조선 승종 34년(1708)에 완성된 조령산성을 밟는 길이기도 하다.

천천히 걸어도 새재에서 마태봉까지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지형도에는 마태봉이라 나와 있으나 이 곳 사람들은 마태봉이라 부르므로 그것을 따르기로 한다.

마태봉에 올라 열은 구름에 어린 노을을 훑아 면대 눈길을 주니, 자연스레 사방을 에워싼 봉우리들이 얼굴을 내민다. 동쪽으로 부봉, 서쪽으로 신선봉, 남쪽으로 조령산과 북쪽으로 월악산이 저마다 우뚝하다. 그 중에서 월악의 기골은 단연 으뜸이다.

이름의 동리와 연결되는 탓이다. 동암문에서는 거의 정남쪽 방향으로 십하게 방향을 틀었다가 부봉(856.7m) 못미처서 동쪽으로 휘도는 백두대간의 등성마루는 일한재를 내려다보고 선 봉우리(959m)에 이르러 다시 북쪽으로 곧

장하기도 하는데, 풀 다 자기네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삼국이 광범히 맞서던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 고갯마루는, 이름이 연상시키는 아스라히 높은 고개라는 느낌과는 달리 북쪽으로 우뚝 솟은 포암산의 받치에 남작 열드린 느낌이다. 그런데 왜 하늘재라는 이름을 얻었을까. 그러나 이런 의문도, 고개란, 머물기 위한 길이 아니라 타고 넘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쉽게 풀린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 고개의 동쪽은 풍경이 문경읍의 관음리고 서쪽은 송주시 삼오면의 미륵리인데, 관음과 미륵을 이어주는 길이니 어찌 하늘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관음과 내일의 미륵이 만나는 절대의 시간인 '이 순간'을 배고 해탈과 극락을 말할 수는 없다. 관음과 미륵의 중재로서 하늘재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결코 이 말이 헛소리가 아님은 관음리와 미륵리 일대의 수많은 불상과 석탑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 '이 곳 그리고 이 순간'이 곧 극락이자 해탈의 순간임을 알라는 것이다.

저기 미륵 부처님이, 어서 오라 우릴 반기며 웃고 계신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따른 미륵리 절터의 삼층석탑(충북 유형문화재 제33호).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리 절터(시적 제317호)의 오층석탑(보물 제36호)과 석등(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그리고 석불입상(보물 제96호), 소박한 생김새에 은화한 미소를 지닌 석불입상은 천년을 하루같이 중생들의 고달픈 삶을 어루만지고 있다.

저 녀 노을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사람과 자연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진 탓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대중 매체가 비집고 들어와 인간의 오관과 판단력을 대신한다. 가공된 현실이 실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누구도 내일 날씨를 가늠하기 위해 저녁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일기예보'라는 것이 내일의 표정을 확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어릴 적, 운동회나 소풍 전날에는 어른이 출출해질 때까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었다. 그리고 노을의 그 '붉새'가 잘 익은 홍시빛일 때는 딱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감사를 수습번이고 반복하곤 했었다.

땀방울을 하듯이 후다닥 오르고 내리는 하루 산행이 아니라, 하루고 이름이고 산 위에서 한뼘잠을 자야 하는 산행의 경우에는, 눈비가 오지 않는 한 저녁 노을을 만날 수 있다. 꼭 한 하루를 살았다

는 부듯함과 내일이라는 시간 단위가 주는 경이로움에 설레이지 않을 수 없는 '차분한 들뜸'의 순간이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어릴 적의 나와 남루할 대로 남루해져버린 오늘의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된다.

땀 얼굴로 하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은 축복 가운데 하나다.

하도 높고 험하여 새들조차도 넘기 힘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동남아 불교예술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7일 ₩1,550,000

- 일 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핀곤-해호-양곤-방콕-서울
- 출 발 일 : 9/20 일
- 미얀마 천년 고도인 파간 : 해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남파야, 해산도등
- 공파웅 왕조의 역사 유적지 : 730개의 석장경이 모셔진 쿠도도파고다, 차욱트지파고다, 만달레이힐파고다
- 민군 종, 민군 대담
- 소수민족의 풍속 여행지해호 : 형태와 모양이 다른 수천 불상을 모신 펜다야 동굴사원, 인레호수
- 미얀마의 수도 양곤 : 와불이 모셔진 차욱타지파고다, 보타타웅파고다,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전견대법회) 미얀마의 상징 해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센터 마하시 수도원, 아웅산보지등.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古都의 땅을 찾아...

日本 佛教 文化探訪 5일 ₩1,050,000

- 일 정 : 서울 - 오사카 - 고야 - 나라 - 교토 - 사가 - 오사카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비자 비용, 공항세, 보험, 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전일정 식사
- 출 발 일 : 9/22

우리의 멋스러움이 녹아 스며있는 일본 불교문화 그 곳을 찾아 떠나는 일본 성지 순례...

- 오사카 : 일본 제2의 도시, 한국인의 뉘이 서린 땅
- 교 토 : 일본 문화의 보고로 지금까지도 남아 숨쉬는 옛 古都의 자태
- 나 라 : 백제의 불교가 전파된 고대문화의 중심지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니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보고 땅임을 저지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라야! 시간을 넘니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 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 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 목, 토 개별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여행사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반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윤회니 순례 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년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르나-바이살리(대립정사,아소카 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해트 마헤트(사위성, 기원정사)-퉁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불교 적대의 석굴 "막고굴" 탐방 4박 5일 ₩1,090,000

'진'시황제의 명미중...비밀, 대안일 등 탐방

- 일 정 : 서울 - 서안-통항-양관-서안-서울
- 포함사항 : 항공료, 숙식, 중국비자, 입장료, 전용차량
- 출 발 일 : 9/18, 9/25, 10/2, 10/9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